



홍수와 가난과 이슬람의 나라 방글라데시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이곳은 30도가 넘는 더위와 우기로 접어들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다녀오는 길에 너무 더워 기온이 몇 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날씨지도를 보다가 방글라데시 전역이 불타는 듯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집안 몇 군데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 주인의 말로는 이전에 물이 섰던 곳을 다 수리해서 이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저희 집과 윗집과 아랫집이 모두 같은 곳에 벽들이 일어나고 하얀가루가 떨어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곰팡이가 더 넓게 퍼지기 전에 보수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모임

매월 진행되는 목회자 모임에서 이번에는 성령과 전도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과 전도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사단은 견딜 수 없어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지 목사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더욱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척박한 땅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울 캠프

코로나 이전에는 시골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하다 보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2박 3일간 하는 캠프에 참석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도 했고 여전히 가난한 부족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어서 복음이 전해진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현지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각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많은 도로가 침수되고 유실되어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노골 캠프





캠프 도중 폭우와 우박이 양철지붕에 한참동안 떨어져 캠프가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이내 다시 아이들을 집중시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다카로 돌아오기 위해 화살표 부분에 있는 다리까지 가야 차를 탈 수 있어서 스태프들과 함께 캠프에 사용한 비품들을 들고 교회를부터 한참을 걸어 왔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볼초구리 캠프



캠프 중간 쉬는 시간에 볼일을 보기 위해 논으로 달려가는 아이들



식사를 이전보다 넉넉히 준비해서 다 먹고 2~3번 더 먹는 아이들을 보며 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자기 그릇을 씻고 있는 아이들과 한편에서 수영하고 있는 동네아이들 모습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연못과 같이 고인 물은 있지만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한참 해야 물을 끌어 올려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저도 더 힘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라빠라 캠프



강 건너편에 있는 아라빠라 교회를 가기 위해 차비도 많이 들고 돌아가는 시간도 많이 걸려 강을 가로 질러 가야합니다. 우기 때는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배로 건너지만 아직 충분히 비가 내리지 않아 모래 밭을 비품들을 들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물론 강물이 많이 차 있어도 선착장까지는 비품을 들고 가야 합니다.



한 참을 걸어 모래 사장을 겨우 지나 다리를 통과 하는 모습. 우기때는 배로 사람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겨주며 돈을 벌고 건기 때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고 통행료를 받습니다.



현지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덕위에 위치해 있는 아라빠라 교회



가장 최근에 지어져 깨끗한 모습의 아라빠라 교회



너무 가난하고 외진 시골이라 담당 사역자가 없어서 청년팀의 셀리더가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매주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현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제일 난감한 것이 바퀴벌레가 보일 때입니다. 안 보이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타고 다닐만 한데 가끔 제가 앉아 있는 좌석 앞 등받이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 손으로 쳐서 멀리 날려보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시골에 캠프가 있어서 현지 버스를 타고 다녀오고 나면 가족들도 몸이 가려워져서 몇 일을 같이 굶게 됩니다. 아내와 딸 아이는 피부가 약해 너무 긁어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제게 시골에 다녀올 때면 밖에서 씻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너무 가려워지니까 씻고 들어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처럼 새벽 4, 5시에 도착해서 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야하고 그럼에도 제게 맡겨 주심에 감사하며 힘을 냅니다.

뉴라이프 캠프

뉴라이프 교실에서 일일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도 다카에 있음에도 캠프도중 몇 번씩 정전이 되었지만 이미 시골에서 캠프를 진행하며 정전이 된 경험이 많아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하며 계속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쁘게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 들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아이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치원 소식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학부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데 그 중 한 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활절이 라마단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 벵갈어로 된 영상을 찾아서 부활절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전달해서 그 영상을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떨 겠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확인을 하고 영상은 참 좋은 자료인데 올해는 라마단 기간이라 서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국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부형들도 아이들도 예쁘게 꾸며진 계란 바구니를 보고 좋아하면서도 행사가 끝나고 유치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계란 바구니를 책가방에 넣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많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의 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학부모들이 순서대로 유치원에 방문하여 수업 시간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

생활주제 - 과일

‘과일’ 주제로 수업하며 관련된 간식도 먹고 연계활동도 즐겁게~
과일 씨앗도 심고 싹도 났어요~





세면대 설치

유치원 마당에 수돗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신발보다 걸어 오면서 묻어 온 흙이 더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 마당에서 신발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더 가까이 (종이접기 교실)



지난 부활절에 종이를 이용하여 계란 바구니를 만들어 가정으로 보냈었는데 만드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28명의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였고 팀을 나누어 종이 접기 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곳에서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이 좋은 색종이를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보내주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느님 이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무시로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는 색종이를 통하여, 이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무슬림 부모들과 가까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저희는 그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동역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방법대로 유치원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길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지혜가 많아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2.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센터 유치원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샤프마리 학교가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3. 사역을 위한 차량이 구입되도록
4. 비자문제가 해결이 되도록